

한·중·일의 근대 어휘 교류에 관한 연구*

-삼페인의 표기와 개념-

이자호**

〈 Abstract 〉

Study on modern vocabulary interchange betwee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Notation and concept of champagne

This study examined notation of the word champagne, the liquor from France, and changes in its concept. Studies on modern vocabulary interchange betwee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have focused mainly on Chinese words.

In contrast, this study examined vocabulary interchange through association with the notation of a kanji and the Hangeul Alphabet. Significantly, this study shows the conceptual change in transliteration of the word champagne "三鞭酒", which was received from Chinese to Japanese, and from Japanese to Korean.

Through English-Chinese dictionaries, "三鞭酒" was received from Chinese to Japanese. In Korean, after 江華島條約(1876), "三鞭酒" became establish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However, the notation in Chinese changed from "三鞭酒" to "香檳酒", and from 1945, "三鞭酒" was created from "三鞭丸", the conventional analeptic efficacious medicine.

In the Hangeul Alphabet, "삼페인" begun to be used by Koreans after the 1950s, and recognition that "三鞭酒=삼페인" disappeared after the 1970s. In particular, analeptic efficacious medicine "三鞭酒" was formally imported from China in the 1990s, and it may be said that "三鞭酒", which was once a name of French liquor, accomplished the change to a name of Chinese efficacious medicine.

Field : Japanese History

Keywords : Sampyeonju, Hyangbinju, change of concept and notation, Chinese, Korean

1. 근대 어휘 교류의 연구와 삼페인

한자문화권이라 불리는 한·중·일 3개국에서 1800년대 중후반 이후 소위 근대(한국은 개화기)라 불리는 시기의 언어학적 특징으로 어휘의 급증을 들 수 있다. 宮島達夫(1994)¹⁾는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에서 기본 1000단어가 언제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사전을 이용해 조사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영어나 프랑스어는 이미 19세기에 기본 1000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대해, 일본어는 19세기 초에 아직 850단어 수준에 머물다가 19세기 중반이후 갑자기 급상승한다. 한편, 중국어는 19세기 이전까지 앞서있지만 19세기 중반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2474)

** 경북대학교 부교수, 일본어학

1) 宮島達夫 「言語史の比較対照」 (1994년 일본 국어학회(현재, 일본어학회) 추계대회 발표(陳力衛 2001, p.267에서 재인용)).

이후 일본어에 역전당하고 있다.

위와 같은 19세기 이후 중·일의 기본 1000단어의 변화에 대해 陳力衛(2001)는 일본어 어휘의 급격한 증가는 한어의 증가와 관련 있으며 일본어보다 50년 늦은 19세기 중반이후 중국어의 어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다름 아닌 일본에서 성립한 한어의 유입에 의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²⁾.

한국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조사는 없었지만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중국어에 의한 영향에 의해 그리고 그 이후 특히 朝日守護條規(1876) 이후에는 일본어의 영향에 의한 어휘의 증가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³⁾.

19세기 이후 서구 근대 문물 및 개념의 유입으로 인해 이들을 나타내기 위한 새로운 단어를 많이 만들거나 차용하였는데 한·중·일 동양 3국은 한자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문화권이기에 때문에 주로 한자를 매개로 조어 및 차용이 이루어졌다.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함축성 및 명확성, 간결성과 같은 특성은 한자를 통한 어휘의 교류에 매우 유용했다. 예를 들면, 「讀書→책(書)을 읽다(讀)」 「新聞→새롭게(新) 듣는(聞) 것」 과 같이 한문을 읽을 수 있었던 19세기 한·중·일의 지식인들은 한자를 통해 새로운 문물,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자를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조어하고 그 단어를 서로 차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중·일 동양 3국의 어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한어를 중심으로 한 법률, 의학 등의 분야별 또는 개별어의 용법이나 유입 시기, 접미사 등의 용법 등에 대한 연구가 많다.

하지만, 실상은 매우 복잡하다.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전해졌지만 1000년이 넘는 오랜 기간을 한국과 일본은 한자를 사용하였고 그 사이 3국의 한자 사용은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예를 들면, 한자 표기를 다르게 하거나(堅勝 對 健勝), 의미 및 어구성(愛人: 사람을 사랑하다(中) 對 사랑하는 사람(韓,日))에서 차이를 보이는 등 한자 사용 양상의 차이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최근, 王永全외 2인(2007), 佐藤貢悅외 1인(2010), 関西大学中国語教材研究会(2011)가 같은 동형어를 중심으로 한 의미의 차이에 대한 사전을 출간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어에 대한 연구 = 同形語를 중심으로 한 漢語(字音語)의 연구」라는 인식은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서 한어 뿐 만 아니라 한자로 표기된 외래어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외국 지명·국명의 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의 근대 어휘 교류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서구의 근대 문물인 샴페인⁴⁾이 각국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그 개념과 표기가 어떠한지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기존의 漢語(字音語)를 중심으로 한 근대어(1800년대 전반 이후)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서구로부터 새롭게 유입된 근대 문물을 나타내는 外來語에 대한 漢字表記語의 연구, 그 개념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샴페인의 유래와 조선 유입

샴페인이란 명칭은 프랑스 샹파뉴(Champagne) 지방의 지명에서 유래한 것이다. 다음은 샴페인의 유래에 관한 신문 기사⁵⁾이다.

2) 陳力衛(2001) 『和製漢語の形成とその展開』 汲古書院 pp.267-268.

3) 이한섭(2014)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부 p.983.

4) 본문에서는 샴페인으로 지칭한다. 표기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로 표시하기로 한다.

5) 충북일보 2014년 3월 26일자(오피니언-기고 이관표(세명대 호텔관광학부 교수) 「샴페인의 유래」).

1668년 프랑스 상파뉴 지방의 오비레 수도원으로 부임한 동 페리뇽(Dom Perignon) 수도승은 그곳의 술 창고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지하의 술 창고를 돌아보다가 아직 발효가 끝나지 않은 포도주병에 별 생각 없이 코르크 마개를 봉해 두었다. 그 뒤 며칠 만에 그 포도주병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폭발하였고, 그 소리에 놀라 달려온 동 페리뇽은 깨어진 유리로 그 황금색의 술맛을 음미하고는 너무 맛이 있어 소리친 것이 샴페인의 탄생이었다.

동 페리뇽(1638~1715)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두께의 병과 뚜껑을 철사로 붙들어 매는 방법 등을 고안하는 등 오늘날의 샴페인을 탄생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샴페인은 영국에서 망명 중이던 생 에브르몽(Saint-Evremond)후작의 소개로 영국에서 유행하게 되면서 영어식 이름인 샴페인(Champaign)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⁶⁾.

한편, 독일 상인 오펔트는 자신이 저서인 『禁斷의 나라 朝鮮紀行』⁷⁾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에 대해 논하면서 「speciell fure Champagner und das sogenannte Cherry cordial」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洋酒나 高農度再製酒와 같은 강한 음료를 좋아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샴페인을 좋아했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장지현(1996)은 중국 상해를 거점으로 극동무역에 나섰던 독일 상인 오펔트가 정부를 상대로 통상을 요구하면서 고종 3년(1866) 아산만 연안에 상륙하였을 때 우리나라 지방관에게 건네준 선물 중에 이 발포성 포도주인 샴페인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⁸⁾.

독일 상인 오펔트가 샴페인을 조선에 가져온 것은 비공식적이지만, 공식적인 기록으로 보이는 것은 『增補文獻備考』이다⁹⁾.

韓日稅則 第7飲食物煙草類…洋酒 上伯允…值百抽三十

이것은, 洋酒의 하나인 上伯允의 관세율이 酒價의 30%로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장지현(1996)은 朝日守護條規가 체결되면서 고종 13년(1876)부터는 공식 무역품목으로 일본을 거쳐 그 밖의 서구 양주류와 함께 유입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프랑스와 통상조약을 맺은 고종 23년(1886) 내지는 실제로 韓佛條約이 批准된 고종 24년(1887)부터는 프랑스를 통해 직접 샴페인이 유입될 수는 있었지만 『增補文獻備考』에 기록이 없어 사실 여부는 분명치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 상파뉴의 수도사 동 페리뇽에 의해 시작된 프랑스의 술 샴페인은 영국에서 유행하게 되면서 영어식 이름인 샴페인(Champaign)으로 불리게 되고, 독일 상인 오펔트에 의해 1866년 중국에서 조선으로 비공식적으로 유입되었지만 朝日守護條規가 체결되면서 고종 13년(1876)부터는 일본을 통해 공식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6) 유동숙 외(2012)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어원 500가지』 예담.

7) Ein Verschlossenes Land Reisen Nach Korea, Neigung zu Getra:nken p.127.

8) 장지현(1996) 『韓國外來酒流入史研究』 修學社(p.339) pp.291-293.

9) 『增補文獻備考』 권 164, 韓日租稅條. 장지현(1996)에는 「值百抽二十五」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것은 「值百抽三十」의 誤記로 보인다.

3. 샴페인을 나타내는 중국어와 일본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샴페인은 중국에서 처음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英華辭典에서 샴페인의 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三變酒」 「三鞭酒」로 나타나 있다.

- W. Williams (1844) 『英華韻府歷階』
 Champaign 三變酒 san-pien tsiu.
 W. Lobscheid (1866~1869) 『英華字典』
 Champagne 三鞭酒 sam-pien tsau.
 鄭其照 (1882) 『增補英華字典集成』
 三鞭 Champagne

한편, 일본어 문헌에서 샴페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三邊酒」 「三鞭酒」로 나타나 있다.

- 村田文夫編(1872) 『洋語音譯箋』
 三邊酒シャンペン 三鞭酒·酒名
 柴田昌吉·子安峻(1873) 『附音插圖英和字典』
 Champagne 三鞭酒 シャンパンシュ
 尺辰八(1884) 『明治英和字典』
 Champagne 三鞭酒 シャンパン
 이스트레이키·柳橋一郎共訳(1888) 『和譯字彙』
 Cham-pagne 三鞭酒 シャンパンシュ

위와 같이, 샴페인의 한자표기에는 「三變酒」 「三邊酒」 「三鞭酒」 세 종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중국어와 일본어에 공통된 「三鞭酒」는 중국어에서 유래한 표기법인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국어사전인 『日本国語大辞典』에서 「シャンパン」을 찾아보면 참고 사항으로 『言海』에 「三鞭酒」로 표기되어 있다고 쓰여 있는데 실제로 『言海』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シャンパン(名)三鞭酒(佛国ノChampagneノ地ヨリ製出ス)
 仏蘭西ヨリ舶来スル一種ノ酒、烈シク揮發シ泡立チテ甘美ナルモノ。

또한, 『明治事物起源』¹⁰⁾(1945)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明治四年秋『往来』に、亜瀝酒、三鞭酒、赤葡萄の三種を挙げたり。

즉, 샴페인을 나타내는 중국 유래의 「三鞭酒」는 1800년대 후반 일본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10) 石井研堂(1945) 『明治事物起源』 下卷 第18編 飲食部 p.76.

4. 삼페인을 나타내는 한국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 삼페인이 소개된 것은 고종 3년인 1866년 이후의 일이다. 이에 근거해, 1866년 이후의 자료인 『朝鮮王朝實錄』 『漢城旬報』 『漢城周報』 『한영자전』 (언더우드, 1890)¹¹⁾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漢城旬報』 (1884.2.27.) 16면
 …歐洲大陸之道路自參孚籠之地先興工役… 주) 지명 상파뉴지방.

『漢城周報』 (1887.7.4.) 제 70호.
 保畢羅地方 주) 지명 상파뉴지방.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5권(1905년 11월 2일)
 (3)伊藤大使 韓国往復日誌
 …飲料モ韓酒ノ外三鞭酒及炭酸水ヲ加へ…

『大韓每日申報』 (1906년 1월 10일 漫評 皮開化)
 堂堂히 洋料理樓倚子上에 咖啡茶를 啖飲하며 三鞭酒를 決破하니 文明開化이 아닌가

『朝鮮王朝實錄』 純付 7卷 9年(1916.2.2.)
 二日賜赤葡萄酒부란대各一打于總督伯爵寺內正穀以 其生日也 德壽宮亦有三鞭酒一打下賜
 주) 이상 밑줄은 필자.

앞서 살펴본 『增補文獻備考』 (권 164, 韓日租稅條)의 기록에 나타난 「上伯允」을 포함하여 「參孚籠」 「保畢羅」 「三鞭酒」의 표기가 보인다. 「參孚籠」(『漢城旬報』 1884) 및 「保畢羅」(『漢城周報』 1887)¹²⁾는 중국이나 일본어의 표기와 다른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지명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 가운데 「三鞭酒」는 朝日守護條規 이후 일본과 관련이 있는 자료에 출현한다는 점에서 일본어에 의한 영향임을 짐작하게 한다. 참고로, 『한국음식대관』(2001)에는 「조선시대(1392~1910)의 술」¹³⁾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삼페인에 대한 기술은 『增補文獻備考』 외에 없다. 만약, 朝日守護條規(1876)과 같은 일본의 영향이 없었다면 삼페인에 대한 표기는 우리 고유의 漢字表記語 「上伯允」으로 정착되었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된다.

11) 『한영자전』에서는 「三鞭酒(삼편주 포함)」 「삼페인」 등의 삼페인을 나타내는 표제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
 12) 「保畢羅」는 『漢城周報』의 조사에서 삼페인에 대한 한자표기로 검색되지만 삼페인의 발음과는 동떨어진 표기로 오류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13)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1) 『한국음식대관』 제 4권, 한림출판사 pp.333-363.

5. 「三鞭酒」의 개념

『漢語大詞典』(1990)에는 「三鞭酒」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三鞭酒】 以三种雄性动物的生殖器泡制成的强身酒。鲁迅<准风月谈·中国的奇想>: “无论古今, 谁都知道, 一个男人有许多女人, 一味纵欲, 后来是不但天天喝三鞭酒也无效, 简直非‘寿(?)终正寝’不可的。”

일본어역: 三種類の雄の動物の生殖器を漬け入れた滋養強壯のお酒。

(『漢語大詞典』卷1、p. 252)

주)일본어역은 陳力衛(1999)에서 인용. 以下 同.

이제까지 살펴본 서양의 술 삼페인을 의미하는 「三鞭酒」와는 매우 다른 해석임을 알 수 있다. 陳力衛(1999)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서는 삼페인을 「香檳酒」로 표기하는데 이것은 중국어에서 「鞭」이 갖는 의미나 이미지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⁴⁾.

断了, 还有竹鞭。”参见“鞭笞”。⑦指动物的阴茎。如: 牛鞭, 鹿鞭。⑧古代一种打击性兵器。用铁做成, 有节, 没

일본어역: 動物の陰莖を指す。例えば、牛鞭、鹿鞭。

(『漢語大詞典』卷12、p. 204)의미항목 ⑦

즉, 중국어에서 「鞭」은 「동물의 음경」을 가리키기 때문에 양주의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아 「三鞭酒」에서 「香檳酒」로 한자표기가 변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한편, 현대 중국에서 「동물의 음경」을 이용한 「三鞭酒」가 제조된 것은 기존의 자양강장의 명약인 「三鞭丸」에 기초해서 같은 產地인 山東煙臺葡萄酒廠에서 1945년 이후 만들었는데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魯迅의 영향에 의한 命名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현대 한국의 인터넷에서 「三鞭酒」를 검색해 보면 중국의 자양강장제 「三鞭酒」가 검색된다.

즉, 중국의 1800년대 후반의 英華辭典에서는 삼페인에 대한 음역으로 「三鞭酒」를 사용했었지만 「鞭」에 관한 중국 고유의 이미지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香檳酒」로 그 표기가 대체되었으며 종래의 자양강장제 「三鞭丸」의 產地에서 「동물의 음경」을 이용한 자양강장제를 만들게 된 1945년 이후 魯迅의 영향에 의해 「三鞭酒」를 사용함으로써 중국어에서 「三鞭酒」는 삼페인에서 자양강장제를 의미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프랑스의 술 삼페인이 조선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英華辭典의 영향을 받은 일본어에서 사용하던 「三鞭酒」라는 한자 표기도 함께 전해져 일본과 한국에서는 180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었지만 정작 중국어에서는 자양강장제로 그 의미가 변하고 프랑스의 술 삼페인은 다른 한자표기인 「香檳酒」로 불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4) 陳力衛(1999) 「三鞭酒·シャンパン·香檳酒」 『しにか』 vol.10 no.7. 大修館書店, pp.84-90 참조.

6. 한국어에서 샴페인의 표기 변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 샴페인을 표기하는 방법에는 「上伯允」(『增補文獻備考』), 「參孚籠」(『漢城旬報』), 「保畢羅」(『漢城周報』), 「三鞭酒」(『駐韓日本公使館記錄』) 4가지를 찾을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앞의 3가지는 한국 고유의 표기법이라 추측되는데, 그 가운데 「參孚籠」(『漢城旬報』), 「保畢羅」(『漢城周報』)는 실제로는 프랑스의 샴파뉴 지방을 의미하는 지명이고 나머지 「上伯允」만이 프랑스의 술 이름 샴페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이 「上伯允」은 『增補文獻備考』 외에는 출현하지 않고 朝日守護條規 이후 「三鞭酒」만이 사용된다¹⁵⁾. 그런데, 필자를 포함해 현대 한국인들은 프랑스의 샴페인을 영어 표기인 「Champaign」이나 「샴페인」으로 알고 있지 「三鞭酒」라고 했던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 샴페인을 「三鞭酒」가 아닌 「샴페인」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본 연구에서는, 신문기사 검색¹⁶⁾을 통해 두 표기의 사용 경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6.1 한자 표기에 유래한 「三鞭酒(삼편주)」의 출현과 개념의 변화

朝日守護條規가 체결된 고종 13년(1876)부터는 일본을 통해 프랑스의 술 샴페인이 수입되었다는 점과 韓佛條約 批准이 있었던 고종 24년(1887)부터는 프랑스를 통해 직접 샴페인이 유입될 수는 있었지만 『增補文獻備考』 외에는 기록이 없어 일본이 프랑스와 조선간의 삼자 무역을 통해 샴페인을 수입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앞에 서술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정치적 배경 때문인지 샴페인은 당시 일본에서 널리 사용하던 「三鞭酒」로 알려지고 그 기록도 일본인의 기록인 『駐韓日本公使館記錄』에 처음 나타난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5권(1905년 11월 2일 (3)伊藤大使 韓国往復日誌)
 …飲料モ韓酒ノ外三鞭酒及炭酸水ヲ加へ…

『大韓每日申報』(1906년 1월 10일 漫評 皮開化)
 堂堂히 洋料理樓椅子 위에 珈비茶를 啞飲하며 三鞭酒를 決破하니 文明開化이 아닌가

『皇城新聞』(1908년 7월 18일 2면 3단 雜報 財源調査의 果實釀酒)¹⁷⁾
 … 尙且我國所産果實을原料삼아三鞭酒葡萄酒製酒…

『東亞日報』(1920년 5월 29일 3면 社會 朝飯前에 大邸에 伊兩中尉京城發)
 … 비행기는 십여인 군인의 손으로 비스긋해 푸른빛이 새로운 날뵈 벌판으로 시그레내이니 십여인의 경성 재류 서양부인들은 『삼편주』 병과 곱부를 밧쳐들고서 중위의 엄흐로 물녀 드러 다정한 축배를 올리는 중…

15) 중국에서 사용하는 「香檳酒」는 네이버 뉴스 기사 검색에서 그 사용례를 발견할 수 없었다.

16) 한국언론재단과 네이버 뉴스 기사 검색을 이용했다.

17) 한국언론재단 검색에서 『皇城新聞』에는 총 109회(1904~1910년) 검색되지만 6번을 제외하고 전부 明月館 擴張廣告에 실린 「三鞭酒」이다.

『東亞日報』(1929년11월8일 2면 사회 사진 勞農領館革命記念式)
제정 러시아 정부를 전복한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 량방 혁명 십일주년 기념일이 십일월칠일임으로 경성주재 그 총령사관에서는 오전 열시부터 총령사 이하 관원 일동이 각 외교대표와 관민의 축하를 바뉘는데 일동은 삼편주를 들어 경축하였더라

『東亞日報』(1935년11월8일 5면 생활/문화 소설 『먼동이 틀 때』)
「조선호텔? 아구 조아라! 전 침야요. 호텔은. 삼편주나 한잔씩 하구 우리 카페 구경 가실까요?」

『東亞日報』(1940년6월6일 4면 경제 기사(기획/연재) 獨逸의 對列強經濟戰體裁)
戰時經濟緊急令에 依한 戰時特別稅는 大略 다음과 같은 것이다. (중략)
一. 三鞭酒及類似的 飲料는 한병에 一馬克을 課함. 其他의 飲料는 한병에 五十펜스를 課함.

『東亞日報』(1959년12월24일 4면 생활/문화 獨逸의 聖誕節風習)
오래된 술일수록 歡迎받고 珍奇하게 생각한다. 佛蘭西의 삼팡(三鞭酒)도 이날의 王者로서 食卓에 오른다.

『京鄉新聞』(1974년8월8일 4면 사회 기사 칼럼 新 東醫寶鑑)
「三鞭酒」라고하여 鹿鞭(페니스를 鞭이라고 한다), 海狗腎, 黃狗腎의 3종류로 술을 담근것인데 호사가들 사이에 펍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어떨지.

『每日經濟新聞』(1982년7월29일 9면 사회 기사 칼럼/논단 新釋 東醫寶鑑)
물개, 사슴, 개의 그것 세 가지를 말려서 만든 것으로 三鞭丸이니 三鞭酒니 하는 것이 있으나 정신적인 암시효과일 것이라고 되어 있다.

『每日經濟新聞』(1993년11월12일 15면 광고)
소문으로만 들던 바로 그 「특질 삼편주」 이제 더욱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韓國經濟新聞』(2003년8월27일 1면 북경동인당 한방술 공급·한인주류유통)
주류 총관업체인 한인주류유통이 중국 주류업체 북경동인당의 한방 약술을 들여와 추석선물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호걸주(알코올 도수 56도), 국공주(55도), 여의장성주(40도), 삼편주(35도) 등이 있다.

『파이낸셜뉴스』(2003년11월12일 中동인당 약술 국내시판)
340년 전통의 중국 베이징동인당 약술이 국내에서 시판된다.
한인주류유통은 베이징동인당 주식회사와 약주 한국판매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약주를 국내에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중략) 베이징동인당의 대표적 약주인 호걸주, 국공주, 십전대보주, 여의장성주는 보령약국에서 판매중이다. 또 삼영주와 삼편주는 식약청의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승인이 나는 대로 판매할 예정이다.

『육천신문』(2008년9월11일 우리고장알기 낱말 맞추기)
◆가로열쇠
21) 인도네시아를 한자음으로 나타낸 음역어. 가령 커피는 가배, 삼페인은 삼편주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1905년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이후 삼페인을 「三鞭酒」로 표기했음을 위의 신문기사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다. 1945년 독립이 된 후에도 한동안 계속 되다가 1959년 『東亞日報』에 「三鞭酒」라는 附記와 함께 앞에 「삼광」이라는 한글 표기가 처음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59년 「삼광」이 출현한 이후 등장한 1974년 『京鄉新聞』의 기사에는 삼페인으로서의 「三鞭酒」가 아닌 중국의 약술에 대한 소개¹⁸⁾로 「三鞭酒」가 등장한다. 앞으로 더욱 조사를 해 봐야 하겠지만 대략 1960년대에는 이미 「삼페인 = 三鞭酒」라는 개념이 바뀐 것으로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한국전쟁을 경험한 이후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 된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이후 중국의 약술로 인식되기 시작한 「三鞭酒」는 『每日經濟新聞』(1993년) 『韓國經濟新聞』(2003년)의 신문 기사를 통해 1990년대 이후 공식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옥천신문』(2008년)에서 보듯이 퀴즈에 출현할 정도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三鞭酒」가 된 것이다.

6.2 외래어를 음역한 한글 표기 「삼페인」의 출현

『東亞日報』(1955년7월19일 3면 사회 75名の美人公開行列 『몽비-치』市長爲해)
『미미로』시장은 『미쓰·프랑스』로부터 『삼페인』주를 『미쓰·일본』으로부터는 진주 『카우스단추』와 『넥타이핀』을 받았다

『京鄉新聞』(1960년10월26일 2면 정치 佛·西獨, 其他協定에 調印)
이中 最初로는 四個의 西獨軍 大隊가 來月初 「라인」方 「삼페인」에 있는 「씨손느」佛軍兵營에 訓練을 받게 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京鄉新聞』(1960년11월10일 3면 정치 喜悲雙曲 짝크와 디크 夫人)
양복 위에 잠옷을 걸친 「닉슨」씨는 「테레비존」관전을 하면서 「샌드위치」과실 「커피」그리고 「삼페인」등을 들었다.

『京鄉新聞』(1962년8월19일 4면 연애 映畫俳優와 離婚)
「라나·타나」도 이 길엔 남 못지않아 몇 번이고 「삼페인」을 터뜨렸다.

『京鄉新聞』(1966년7월9일 2면 정치 열매거둔 大統領의 持久戰)
협정이 체결되는 9일 아침 청와대 소견실에서 「러스크」長官을 맞아 異例의인 「삼페인」소리가 나고 拍手가 터져 나왔다.

『東亞日報』(1976년11월23일 雜學小辭典 泡沫의 藝術作品… 「삼페인」)
무슨 때마다 곧잘 삼페인을 터뜨리기 좋아한다. (중략) 이 귀중한 거품의 예술품 삼페인은 누가 발명했는가.

18) 『京鄉新聞』(1974년8월8일 新 東醫寶鑑)과 『每日經濟新聞』(1982년7월29일 新釋 東醫寶鑑)은 동일 인물(洪文和, 전 서울대 교수)이 쓴 칼럼이다.

서양의 양주 샴페인을 의미하는 「三鞭酒」가 한글 표기인 「삼팡」과 더불어 신문 기사에 출현한 것은 1959년 『東亞日報』였다. 그런데 이미 같은 『東亞日報』에 1955년 사회면 기사에 한글 단독 표기인 「삼페인」이 출현한다. 1950년대에 출현하는 「三鞭酒」 「삼페인(삼팡 포함)」은 이 두 기사를 통해 「三鞭酒」에서 「삼페인」으로 이행하는 시기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후 1960년대에는 프랑스의 지명 샤파뉴(『京鄉新聞』 1960년10월26일)와 술 이름 모두에 「삼페인(『京鄉新聞』 (1960년11월10일))」이 사용된다. 그리고 축하할 때에 「삼페인」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 「삼페인을 터뜨리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京鄉新聞』(1962년8월19일)에 사용된다. 다만, 「삼페인으로 축배를 들다」 「삼페인 소리가 나다」 「삼페인을 마시다」 등으로 기사에 많이 등장하다가 1980년대 이후 「삼페인을 터뜨리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스포츠, 정치 기사 등에 자주 등장하게 된다.

『京鄉新聞』(1984년7월23일 8면 스포츠)

油公 前期리그 우승 슈퍼리그, 浦鐵과 비겨

코끼리 유공이 21일 하오 부산에서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렸다.

『京鄉新聞』(1990년1월4일 5면 국제,외신)

홍성만 시평 90년대를 여는 정치권 첫 과제

어쨌든 동방의 한구석에 자리잡은 우리가 선진대열에 도전, 열강들의 주목을

끌게된 것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획기적인 일대사건이었다. 정말 샴페인을 터

뜨려 환호할 만 했다.

7. 맺는 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개국의 근대 어휘 교류에 대해 프랑스의 술 샴페인의 표기와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세기 중엽, 프랑스 동 페리농 신부에 의해 만들어진 샤파뉴 지방의 고유한 술 이름이었던 「샤파뉴(Champagne)」는 영국에서 망명 중이던 생 에브르몽(Saint-Evremond)후작의 소개로 영국에서 유행하게 되면서 영어식 이름인 「삼페인(Champaign)」으로 불리게 된다.

조선에는 19세기 중엽에 샴페인이 수입되는데 일본을 경유하는 三者貿易을 통해 들어 오며 일본어에서 널리 통용되던 「三鞭酒」라는 한자 표기도 더불어 유입된다. 朝日守護條規(1876) 이후 일본 강점기를 거치는 사이 「三鞭酒」는 조선(한국)에서 계속 사용된다. 하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鞭(동물의 음경)」이 나타내는 이미지 때문에 「三鞭酒」는 「香檳酒」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그리고 중국 종래의 자양강장 명약인 「三鞭丸」의 같은 產地에서 1945년 이후 동물의 음경을 이용한 「三鞭酒」를 만들어 판매하게 된다.

한국에서 「三鞭酒=Champagne·Champaign」이란 인식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1955년 이후 1960년대를 거치면서 한글 표기인 「삼페인」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사라지게 된다. 1960년대 초에 「삼페인을 터뜨리다」라는 관용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1980년대 이후 정치, 스포츠 등의 모든 분야에 사용되게 된다.

한편, 중국의 자양강장 약술 「三鞭酒」는 1990년대 이후 한국에 공식적으로 수입되게 되어 현대에는 술 이름으로서의 「三鞭酒」는 신문 기사의 퀴즈에 나올 정도로 한국어로서는 생소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현대한국어에서 그 실체가 서양의 양주 샴페인(외래어 Champagne·Champaign)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漢字表記語 「三鞭酒」를 중심으로 그 표기와 개념의 변화에 관해 살펴 보았다. 개화기나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漢字表記語가 한자문화권의 어휘 교류를 활발하게 한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현대한국어에서는 반대로 그 개념이나 의미의 차이나 혼동을 유발하게 하는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는 것 같다.

한·중·일 3개국의 근대 어휘 교류에 대한 연구는 주로 同形語를 중심으로 한 漢語의 연구 내지는 지명·국명을 나타내는 외래어에 대한 漢字表記語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서구로부터 유입된 신문물을 나타내기 위한 외래어의 표기(漢字表記 및 음역된 한글표기)와 그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밝혀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금후에도 이러한 한·중·일 3개국의 漢字表記語 사용 양상의 차이점에 대해 연구해 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장지현(1996) 『韓國外來酒流入史研究』 修學社 p.339
 조규익·정영문역음(2008)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9 문화·회화 학고방 p.415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1) 『한국음식대관』 제4권 한림출판사
 関西大学中国語教材研究会(2011) 『中日同形語小辞典』 白帝社 p.194
 佐藤貢悦(2010) 『日中韓同字異義小辞典』 勉誠出版 p.225
 王永全(2007) 『日中同形異義語辞典』 東方書店 p.339
 陳力衛(2001) 『和製漢語の形成とその展開』 汲古書院 p.448
 大槻文彦(1936) 『言海』 (縮刷 648版 初版 1889) 林平書店
 小学館(2002~2004) 『日本国語大辞典』 (第2版, 第1版은 1972)

〈 要 旨 〉

韓・中・日の近代語彙交流に関する研究

-シャンペンの表記と概念-

本研究は、仏蘭西で始まったお酒シャンペンの表記と概念の変化に関して論じたものである。韓・中・日の近代語彙交流に関する研究は、漢語を中心に行われてきたが、それは主に字音語に関するものである。それに対して、「三鞭酒」というシャンペンの音訳語が中国語から日本語、日本語から韓国語へと受け入れられる中で、その概念にはどのような変化があったのか漢字およびハンゲルの表記との関連性から捉えたところが本研究の意義である。

「三鞭酒」は中国語から英華辞書を通して日本語へ受け入れられる。韓国(朝鮮)には朝日守護条規(1876)以降、日本強占期を経る間、この「三鞭酒」は定着する。ところが、中国語では「三鞭酒」を「香檳酒」に表記を変えたとともに、1945年以降、従来の滋養強壯の名薬の「三鞭丸」から「三鞭酒」を作り出す。

1950年代以降、韓国語ではハンゲル「삼페인」が使い始められ1970年代以降には「三鞭酒 = 삼페인」という認識はなくなる。特に、1990年代には中国語から公式的に滋養強壯の名薬「三鞭酒」が輸入されることになり、一時期、仏蘭西のお酒の名称であった「三鞭酒」は中国の名薬の名称として変化を成し遂げたと言える。

論文分野：日本語史

キーワード：三鞭酒、香檳酒、表記・概念の変化、漢語、朝鮮

■ 이자호(李慈鎬)

경북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ljh2008@knu.ac.kr

- 投稿日： 2017년 3월 31일
- 審査開始： 2017년 4월 8일
- 審査完了： 2017년 5월 7일
- 掲載確定： 2017년 5월 19일